

**NEW**

# ETF Line-up

NH-Amundi, 삼성, KB 자산운용  
ETF 4종목 신규상장

2월 4주차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글로벌 ETF 김진영 jykim@kiwoom.com  
RA 조호준 hojun.cho@kiwoom.com



## ☑ New ETF 개요

### 상장 개요

'26.2.26(목) 국내 증시에 ETF 4종목 신규 상장

\*상장일(2026. 2. 26) 기준 ETF 상장종목수 : 총 1,073종목

### 상품 요약

#### ▲ HANARO K휴머노이드테마TOP10 (0155N0)

- 국내 로보틱스 및 AI 인프라와 관련된 국내 상장기업 10종목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 ▲ KODEX 금융채1~2년(AA-이상)PLUS액티브 (0162M0)

- 잔존만기 1년 초과, 2년 이하인 AAA 등급 은행채(특수은행채 제외)와 AA- 등급 이상 기타금융채에 주로 투자하는 액티브 ETF

#### ▲ KODEX 차이나이반도체TOP10 (0162L0)

- 반도체, 메모리 및 서버 부문에서 시밸류체인에 속한 중국기업 10종목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 ▲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0162Z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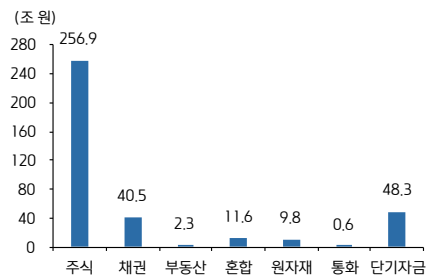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 25%씩 투자하고, 단기 국고통안채 10종목에 50%를 투자하는 채권혼합 패시브 ETF

### ETF 시장 Snapshot

구분	'26.02.13~02.20	'26.02.06~02.13
상장 종목 수	1069 개 (▼1 개)	1070 개
순자산 총액	370.1 조 원 (▲10.9 조)	359.2 조 원
총 거래량	63.3 억 주 (▼92.6 억)	155.9 억 주
총 거래대금	34.2 조 원 (▼37.2 조)	71.4 조 원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2.20 기준

### 국내 ETF 유형별 순자산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2.20 기준

신규 출시 ETF 개요(1)

구분	HANARO K 휴머노이드테마 TOP10	KODEX 금융채 1~2년(AA-이상)PLUS 액티브
코드	0155N0	0162M0
상품 유형	주식형	채권형
운용사	NH-Amundi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기초(비교) 지수	iSelect K 휴머노이드테마 TOP10지수	KAP 금융채 1~2년 총수익 지수
복제방법	실물 (패시브)	실물 (액티브)
총보수 (운용보수)	0.45% (0.40%)	0.09% (0.076%)
연금투자 가능 여부	개인연금 100% / 퇴직연금 70%	개인/퇴직연금 100%
구성종목 수	10종목	739종목
정기 변경	연 4회(3, 6, 9, 12월)	매일

자료: KRX, 각사, 키움증권 리서치

신규 출시 ETF 개요(2)

구분	KODEX 차이나 AI 반도체 TOP10	RISE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채권혼합50
코드	0162L0	0162Z0
상품 유형	주식형	채권혼합형
운용사	삼성자산운용	KB 자산운용
기초(비교) 지수	Indxx China AI Semiconductor Top 10 Index	KAP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채권혼합50지수
복제방법	실물 (패시브)	실물 (패시브)
총보수 (운용보수)	0.55% (0.509%)	0.01% (0.001%)
연금투자 가능 여부	개인연금 100% / 퇴직연금 70%	개인/퇴직연금 100%
구성종목 수	10종목	12종목
정기 변경	연 4회(3, 6, 9, 12월)	주식 채권 비중: 매일 채권 구성종목: 매 월(국고채는 매 분기)

자료: KRX, 각사, 키움증권 리서치

| 신규 출시 ETF 한 눈에 보기

<p><b>ETF 명</b> (코드)</p>	<p><b>HANARO K휴머노이드테마TOP10</b> (0155N0)</p>
<p><b>개요</b></p>	<p>- 국내 로보틱스 및 AI 인프라와 관련된 국내 상장기업 10종목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p>
<p><b>특징</b></p>	<p>- 면밀한 밸류체인 분석을 기반으로 실질 수혜 종목만을 선별한 압축 포트폴리오 구성,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허브로 도약 중인 한국의 구조적 성장 모멘텀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p>
<p><b>기초지수</b></p>	<p>- iSelect K휴머노이드테마 TOP10 지수</p>
<p><b>종목 선정 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버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조건: 심사일 기준 20영업일 평균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 20영업일 평균 거래대금 10억원 이상</li> <li>- 휴머노이드 산업을 반영할 수 있는 키워드(피지컬AI, 로보틱스, 액추에이터 등)를 기준으로 기업 공시자료, 뉴스기사 등을 통해 NLP모델로 키워드 스코어 산출하여 상위 30종목을 기초 유니버스로 선정</li> </ul> </li> <li>▶ 구성종목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유니버스 편입 종목 내 상위 스코어 10개 종목 편입. 스코어 상위 2종목에 15%, 일반 종목에는 조정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적용</li> <li>- 상기 부합 종목 10종목 미만의 경우, 정량 심사 기준 완화하여 재실시</li> <li>- NLP모델 한계로 해당 산업과 연관성 적은 종목 편입되는 문제 등 최소화 위해 공시 보고서, 매출 분석, 시장평가, 애널리스트 의견등 종합한 지수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일부 종목 편출입 가능</li> <li>*단, 직전 사업보고서 기준 휴머노이드 산업 및 AI 인프라 관련 유관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종목은 편입 제외 가능</li> </ul> </li> </ul>
<p><b>투자포인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피지컬 AI의 발전과 휴머노이드 시대의 도래:</b> CES 2026을 기점으로 휴머노이드는 기술 시연 단계를 넘어 제조·물류 현장에 실제 투입 가능한 상용화 단계에 진입. 피지컬 AI의 발전은 로봇을 단순 자동화 장비에서 지능형 작업 파트너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으로 작용. 액추에이터·감속기·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표준화와 양산이 본격화되며 생산 비용이 하락했고, 산업 현장 도입의 경제적 임계점에 도달한 구간으로 판단</li> <li>▶ <b>K-휴머노이드의 지정학적 수혜 기대:</b> 로봇은 단순 기계를 넘어 산업 데이터 수집·활용을 수행하는 전략적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 및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역.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서방 진영은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신뢰 가능한 제조 파트너를 모색 중.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품질 신뢰도를 갖춘 국가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li> <li>▶ <b>핵심 10종목 중심의 압축 포트폴리오 전략:</b> 한국은 반도체·자동차 산업에서 축적된 정밀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강소기업 중심의 견고한 생태계를 보유. K-휴머노이드 밸류체인을 고려할 경우, 구조체·관절 등 '뼈대'를 담당하는 핵심 부품 기업이 중요한 축을 형성. 동시에 이를 유기적으로 구동·통합하는 하드웨어와 제어 시스템(OS 등) 역시 필수 요소이며, 해당 영역은 레인보우로보틱스, 현대오트모에버를 비롯한 삼성·현대차그룹의 전략과 맞닿아 있는 부분</li> </ul>
<p><b>참고자료</b></p>	<p>핵심 부품부터 플랫폼까지, K-휴머노이드 혁신의 중심 축에 투자하는 'HANARO K휴머노이드테마TOP10'</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587 1541 933 1713"> <p><b>액추에이터 등 핵심 부품</b></p> <p>액추에이터 - 로봇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핵심구동부품 사람의 근육, 관절과 같은 부분 감속기, 모터, 센서, 베어링 등의 부품이 결합</p> <p>감속기: 모터 속도 제어, 토크 출력향상 부품 모터: 전기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해 출력 발생 엔코더: 위치, 속도, 토크 등 제어 엑스트러너스: 로봇의 손 역할 구동부품</p> </div> <div data-bbox="954 1541 1141 1713"> <p><b>주요기업</b></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data-bbox="587 1724 933 1870"> <p><b>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제어</b></p> <p>휴머노이드 완제품 생산 스마트 팩토리, 산업현장 적용 의료용, 교육용 로봇 로봇 제어 및 운용</p> </div> <div data-bbox="954 1724 1141 1870"> <p><b>주요기업</b></p> </div> </div> <p>자료: NH-Amundi 자산운용</p>

<p><b>ETF 명</b> (코드)</p>	<p><b>KODEX 차이나이반도체TOP10</b> (0162L0)</p>				
<p><b>개요</b></p>	<p>- 반도체, 메모리 및 서버 부문에서 AI밸류체인에 속한 중국기업 10종목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p>				
<p><b>특징</b></p>	<p>- 시진핑 정부의 국가 AI 전략에서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인 AI 반도체 밸류체인 속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p>				
<p><b>기초지수</b></p>	<p>- Indxx China AI Semiconductor Top 10 Index (Price Return)</p>				
<p><b>종목 선정 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버스: 중국 본토, 홍콩 상장, 본사가 중국에 소재 중인 기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조건: 총시가총액 \$500M 이상,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1M 이상, 지난 6개월간 거래 가능 일수의 90% 이상 거래, 유동 주식이 발행 주식의 10% 이상 유지, \$10,000 이상 증권은 지수 편입 대상에서 제외</li> <li>- 한 회사에 여러 주식 클래스 존재 시, 홍콩거래소 상장 증권 우선 -&gt; 포트폴리오 내 기존 주식 클래스/상장 종목이 지수의 모든 적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지</li> </ul> </li> <li>▶ 구성종목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워드 스코어링: AI 반도체 관련 키워드(칩 설계, 제조, 메모리, 서버 하드웨어 등 분야 포함)의 출현 빈도에 근거하여 결정</li> <li>- 키워드 점수 25 미만 기업 제외: 키워드는 산업 구조 변화, AI 반도체 생태계 발전, 주요 기관 및 연구 자료 업데이트 등을 반영하여 Indxx 지수위원회 검토 후 수정될 수 있음</li> <li>- 시가총액(70%)와 LLM 점수(30%) 결합하여 순위 산출 후 상위 10개 기업 선정</li> </ul> </li> </ul>				
<p><b>투자포인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차이나 AI전략의 최대 수혜 AI 반도체:</b> 미-중 AI 패권전쟁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양국의 AI 전략 확대 중. AI 기술 패권의 전제 조건은 1)폭증하는 데이터 연산 처리 능력, 2)AI 데이터센터 증설. 따라서 국가 차원의 AI 전략의 최대 수혜 기대 분야는 AI 서버, AI 네트워크, AI 스토리지, 미국산 AI 칩 수출 통제 등과 같은 강도 높은 기술 제재 속에서 중국 AI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산 AI 전용 반도체 칩 개발에 성공. 이에 따른 중국 AI 컴퓨팅 연산능력 개선과 빠른 반도체 국산화 전망 기대</li> <li>▶ <b>국가&amp;빅테크 거대자본의 유입:</b> 시진핑 주석은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 개발 칩 개발에 집중할 것을 발표하며 기술 자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 표명. '25년에는 Physical AI 시장 마련해 거대한 AI 반도체 수요처를 만들었다면, '26년에는 AI 칩 병목 해결을 목표로 중국 국가 자본 주도의 AI 반도체 투자 사이클 진행 중. '24년 중국 빅테크 규제 해제로 중국 빅테크들의 AI Capex 투자확대 진행되며 '25~27년 AI Capex 투자금액은 7,700억 위안(160조원)으로 예상</li> <li>▶ <b>시진핑 AI굴기 방향에 따른 차이나 AI ETF 라인업:</b> '인간형 로봇', '자체 개발 칩' 중심의 기술 굴기를 강조하는 중국. 이에 따라 중국 휴머노이드로봇에 투자하는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에 이어 'Kodex 차이나이반도체TOP10 ETF'까지 출시하여 중국 AI 기술 굴기 수혜에 노출 가능</li> </ul>				
<p><b>참고자료</b></p>	<p>'Kodex 차이나이반도체 TOP10 ETF' 구성 종목과 유사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 차이나이반도체와 유사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매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 <p>★ AI 네트워크 ★</p> <p>광모듈, PCB, 서버용 CCL 등</p> <p>Innolight 12%   Lumentum Eoptolink 10%   Amphenol Shengyi Tech 7%   Credo</p> </td> <td style="width: 25%;"> <p>★ AI 서버 ★</p> <p>GPU, CPU, ASIC</p> <p>Hygon 17%   AMD Cambricon 13%   Nvidia Verisilicon 7%   Broadcom</p> </td> <td style="width: 25%;"> <p>★ AI 메모리칩 ★</p> <p>DRAM, NAND, 인터페이스 칩</p> <p>Giga Device 7%   삼성전자 Montage 6%   SK하이닉스 Micron</p> </td> <td style="width: 25%;"> <p>★ 생산/장비 ★</p> <p>파운드리, 증착 장비 등</p> <p>SMIC 15%   TSMC Piotech 6%   Applied Material</p> </td> </tr> </table> <p>자료: 삼성자산운용, 주) 2026-01-30 기준</p> </div>	<p>★ AI 네트워크 ★</p> <p>광모듈, PCB, 서버용 CCL 등</p> <p>Innolight 12%   Lumentum Eoptolink 10%   Amphenol Shengyi Tech 7%   Credo</p>	<p>★ AI 서버 ★</p> <p>GPU, CPU, ASIC</p> <p>Hygon 17%   AMD Cambricon 13%   Nvidia Verisilicon 7%   Broadcom</p>	<p>★ AI 메모리칩 ★</p> <p>DRAM, NAND, 인터페이스 칩</p> <p>Giga Device 7%   삼성전자 Montage 6%   SK하이닉스 Micron</p>	<p>★ 생산/장비 ★</p> <p>파운드리, 증착 장비 등</p> <p>SMIC 15%   TSMC Piotech 6%   Applied Material</p>
<p>★ AI 네트워크 ★</p> <p>광모듈, PCB, 서버용 CCL 등</p> <p>Innolight 12%   Lumentum Eoptolink 10%   Amphenol Shengyi Tech 7%   Credo</p>	<p>★ AI 서버 ★</p> <p>GPU, CPU, ASIC</p> <p>Hygon 17%   AMD Cambricon 13%   Nvidia Verisilicon 7%   Broadcom</p>	<p>★ AI 메모리칩 ★</p> <p>DRAM, NAND, 인터페이스 칩</p> <p>Giga Device 7%   삼성전자 Montage 6%   SK하이닉스 Micron</p>	<p>★ 생산/장비 ★</p> <p>파운드리, 증착 장비 등</p> <p>SMIC 15%   TSMC Piotech 6%   Applied Material</p>		

<p><b>ETF 명</b> (코드)</p>	<p align="center"><b>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b> (0162Z0)</p>												
<p><b>개요</b></p>	<p>-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 25%씩 투자하고, 단기 국고통안채 10종목에 50%를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ETF</p>												
<p><b>특징</b></p>	<p>- 메모리 슈퍼사이클 지속 국면, 공급망 안보 및 기술적 해자 기반 과점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퇴직연금 계좌 내 안전자산 비중에서도 투자 가능하도록 설계</p>												
<p><b>기초지수</b></p>	<p>- KAP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지수</p>												
<p><b>종목 선정 기준</b></p>	<p>▶ 유니버스 - 주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 채권: KAP 단기 국고통안채 1Y 총수의 지수 구성종목</p> <p>▶ 구성종목 선정 - 주식: 삼성전자 25%, SK하이닉스 25% - 채권: KAP 단기 국고통안채 1Y 총수의 지수 50% *발행잔액 500억원 이상, (국고채) 잔존 만기 4개월 초과 1년 이하 4종목, (통안채) 잔존 만기 1개월 초과 1년 이하 6종목 *세터블 잔존 만기가 1년에 가까운 순으로 편입, 국고채는 동일 발행 만기 2종목 이하로 구성, 동일 발행 만기가 3종목 이상인 경우 최근 발행 2종목을 편입</p>												
<p><b>투자포인트</b></p>	<p>▶ <b>메모리 슈퍼사이클 지속 예상:</b> 자율적 판단을 내리는 에이전틱 AI의 추론 과정 등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연산 속도를 뒷받침하는 메모리 반도체 용량, 대역폭 확대가 필수적. 반면 메모리 반도체 팹(Fab) 한 기 증설에는 최소 5~7년의 시간과 수십조원의 Capex 투자가 필요하여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공급 확대 계획은 수요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에 따라 메모리 공급 부족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p> <p>▶ <b>기술 안보, 기술 장벽 관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독주 지속 예상:</b> 모든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문인 로직 다이는 HBM4 이후 공정에서 메모리 제조사, 고객사(GPU, ASIC 팹리스), 파운드리가 '원팀'이 되어 공동 설계. 기술 안보 차원에서 핵심 공급망 파트너 만이 수행 가능. 10나노 이하 메모리 반도체 선단 공정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도입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에 따라 후발주자 CXMT가 쉽게 넘을 수 없는 기술 장벽으로 작용. 따라서 기술력과 공급망 안보 차원의 해자를 구축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글로벌 HBM시장에서의 과점 구조 유지될 것으로 전망</p> <p>▶ <b>퇴직연금 계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최대로 담기:</b>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은 채권혼합형 ETF로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100% 한도로 투자 가능. 위험자산 최대 투자한도인 70%과 혼합하면 주식 비중 최대 85%까지 투자 가능. 또한 총보수는 연 0.01%(1bp) 수준으로 낮아 장기 투자에 유리한 구조</p>												
<p><b>참고자료</b></p>	<p><b>'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포트폴리오 구성 및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서의 활용 예시</b></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width: 45%;"> <p align="center">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p> <p><b>SAMSUNG</b> 삼성전자</p> <p><b>SK 하이닉스</b> SK하이닉스</p> <p><b>채권 10종목</b> · 국고채 4종목 (만기 4개월~1년) · 통안채 6종목 (만기 1개월~1년)</p> <p>매일 비중 재조정 추가 하락 시 → 추가 편입 추가 상승 시 → 비중 조절</p> </div> <div style="width: 45%;"> <p align="center">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예시</p> <p>① 안전자산 100% :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 <b>국내주식 50%</b> (삼성전자 25%, SK하이닉스 25%) : <b>국내채권 50%</b> 삼성전자 25% SK하이닉스 25% 국고통안채 50%</p> <p>② 위험자산 70% : RISE 200 + 안전자산 30% :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 <b>국내주식 85%</b> (삼성전자 28%, SK하이닉스 21%) : <b>국내채권 15%</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기타 국내 대형주</td> <td>삼성전자</td> <td>SK하이닉스</td> <td>국고통안채</td> </tr> <tr> <td>36.4%</td> <td>20.5%</td> <td>13.2%</td> <td>15%</td> </tr> <tr> <td></td> <td></td> <td></td> <td>7.5% 7.5%</td> </tr> </table> </div> </div> <p>자료: 한국자산평가, KB자산운용, 주 1) 'RISE 200' 포트폴리오는 2026-01-30 기준 주 2) 채권 YTM: 금융투자협회, 2026-02-20 기준, 국고채 3개월~1년, 통안채 3개월~1년 구간 금리)</p>	기타 국내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고통안채	36.4%	20.5%	13.2%	15%				7.5% 7.5%
기타 국내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고통안채										
36.4%	20.5%	13.2%	15%										
			7.5% 7.5%										

국내 신규출시 ETF 리스트 (최근 1개월)

상장일	티커	ETF 명	운용자산 (억원)	개요
01/27	0154H0	KoAct 차이나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95	홍콩 및 중국 본토에 상장된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01/27	0153X0	PLUS 미국고배당주액티브	242	미국 고배당 주식 20종목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02/03	0155M0	ACE 미국 SMR 원자력 TOP10	379	SMR 설계 및 개발, 원전 제조, 우라늄 광물 등과 관련된 미국상장 10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패시브 ETF
02/03	0133E0	TIGER 차이나증권	167	중국 본토 및 홍콩의 증권 브로커리자·자본시장 인프라 관련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2.25 기준

국내 ETF 기초자산 유형별 Snapshot (주간)

구분	상장 종목 수	순자산 총액	일평균 거래량
주식	775 개 (0)	256.9조 원 (▲10.3 조)	31억 주 (▲4,129 만)
채권	139 개 (0)	40.5조 원 (▲3,007 억)	1319만 주 (▲91.4 만)
부동산	13 개 (0)	2.3조 원 (▲178.6 억)	957.8만 주 (▲331.0 만)
혼합	67 개 (0)	11.6조 원 (▲1,818 억)	1911만 주 (▲410.1 만)
원자재	26 개 (0)	9.8조 원 (▲1,672 억)	1632만 주 (▼157.8 만)
통화	12 개 (0)	0.6조 원 (▼6.1 억)	36.3만 주 (▼33.5 만)
단기자금	38 개 (0)	48.3조 원 (▼824.8 억)	542.9만 주 (▲61.5 만)
종합	1070 개 (0)	370조 원 (▲10.8 조)	31.6억 주 (▲0.5 억)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2.13~2026.2.20 기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